

논술고사 문제지 (오후)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일반)
수험번호		성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70점, [문항 2]가 30점입니다.
2. 각 문항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하시오.
3.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4.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5.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논술고사 (인문계열)

■ 문항 1 [70점]

[문항 1 - 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 1 - 나] 기억은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인류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택하여 아래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

< 다 음 >

<p>갈등 해결 역할</p> <p>과거에 대한 기억이 인류사회의 갈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류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p>	<p>갈등 조장 역할</p> <p>과거에 대한 기억이 인류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한다.</p>
---	--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나)-(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제시문 두 개 이상을 활용할 것.
3. (가)에서 설명된 기억의 속성을 활용할 것.
4.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기억에 대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기억이 단순한 보관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 경험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모종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잘못된 기억 현상의 연구자들은 기억이 언어적 명칭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들을 발견한다. 카마이클(L. Carmichael)은 동일한 그림을 두 사람에게 보여준 뒤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다시 그리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안경을 닮았다고 말해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령을 닮았다고 말해준다. 이때 안경을 닮았다고 들은 실험자는 안경과 비슷하게 그림을 기억해내고, 아령을 닮았다고 들은 실험자는 아령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기억 현상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기억 작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억 연구자들은 기억을 구성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실제에 대한 왜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구성적 경향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억의 구성적 경향은 우리가 삶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경향이 사실과 기대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일상적 믿음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자아상과 부조화를 이루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의 정신은 위협을 느끼면서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억의 구성적 경향은 현재적 삶의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니체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억이 아픔이나 고통과 어떤 본질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인간의 기억술에 고통이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억 속에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달구어 찍어야 한다.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만이 기억에 남는다.” 니체가 강조하듯 우리는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기억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경향이 있다. 큰 위협이나 고통을 동반한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통과 기억의 밀접한 관계는 유기체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고통을 주는 상황에 대해 분명히 기억할수록 유기체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하게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확률도 커진다. 특히 이 상황이 인간의 일반적인 적응능력을 압도하는 위협적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우리는 위협적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강렬한 기억을 형성하게 되며 그 상황이 끝난 후에도 고통스런 기억은 되풀이된다. 우리의 기억이 위험한 상황에 고착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뇌는 반복되는 기억을 통해, 그 상황에 다시 노출될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연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보존의 본능에서 나온 이런 기억 활동이 지나칠 경우 삶을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과도한 위협과 공포의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사건 이후에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스런 강박적 기억과 정신적 무기력 현상을 트라우마, 즉 외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의 순간에 병적으로

논술고사 (인문계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한다. 한편,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이나 전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집단적 장애 증후군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사회에서 증상 자체가 인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나) 기억은 주관적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아이젠버그(M. T. Isenberg)에 따르면 역사는 이야기되고 행해진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이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국민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역사에서 승리자의 기억이 지배적인 기억이 되고 이것이 역사 기록에 반영되어 온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국민 국가가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현재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꺼이 신화를 창조해내고 역사의 조작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1871년 프로이센(독일)-프랑스 전쟁의 결과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지역이 독일의 영토로 귀속될 때 폐지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불어 수업의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어의 관계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이 작품이 실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알자스-로렌 지역의 귀속이 프랑스와 독일 양국을 오갔던 일이 반복되기도 했고 애초에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특정 국가에 귀속보다는 분리 독립을 지향했기에 정작 이 지역 주민들은 불어 수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다지 슬픔을 느끼지는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오히려 현실에 가깝다. 결국 이 작품은 프랑스인의 자국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발상에서 탄생하였고 실제로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이 지역은 프랑스에 속해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기 다른 역사적 해석으로 서로 이곳이 자기의 영토임을 주장한다. 이 지역 주민의 프랑스어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하나의 ‘신화’는 이 지역과 프랑스, 독일간의 역사 해석의 충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필리핀 세부 근처의 작은 섬 막탄(Mactan)은 최초의 세계일주로 유명한 마젤란과 관련된 기념비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1519년에 다섯 척의 배를 이끌고 스페인 세비야를 출발하여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 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한 마젤란은 1521년 4월 27일, 가톨릭 개종을 문제로 원주민인 라푸 라푸 족장과 전쟁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1866년에는 스페인과 마젤란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 기념비 가까운 곳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기인 1941년에 또 다시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고 새겨진 역사적인 비가 세워졌다. 비문의 내용은, 마젤란이 막탄 섬의 족장인 라푸 라푸의 병사들과 싸우다 부상을

을 입어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일행은 그의 부하 엘카노의 지휘 아래 스페인에 도착함으로써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 공화국은 1951년에 ‘라푸 라푸’라는 새로운 기념비를 세웠으며, 그 내용도 미국이 세운 비의 내용과 다르다. “이 곳에서 1521년 4월 27일 라푸 라푸와 그의 병사들은 스페인의 침략자들을 물리친 동시에, 그 지도자인 마젤란을 죽였다. 그리하여 라푸 라푸는 유럽의 침략을 물리친 최초의 필리핀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마젤란 일행과 라푸 라푸의 병사 사이의 전투에 대한 스페인과 미국, 필리핀의 기억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사건을 대하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막탄 섬에서는 지금도 기억을 둘러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고등학교 『세계사』 발췌, 수정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48년 백인계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인종 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백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백인 지상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1950년대부터 유색 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백인 정권은 온갖 가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탄압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운동을 전개하던 만델라(N. Mandela)는 1964년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6년간 감옥에서 보내다가 1990년 2월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리고 1994년 다인종 자유 총선거가 치러졌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만델라를 석방하였던 백인 데클레르크(F. W. de Klerk)는 부통령으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어 1995년에 제정된 ‘진실과 화해 법’에 따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두고 과거 자행된 인권 유린과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백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반세기 동안 백인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흑인과 백인 간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역사적인 비극을 진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반성을 바탕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통합되고 화해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케이프타운에 본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투투(D. Tutu) 대주교가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산하 3개 하부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그 중 하나는 흑백 양측에서 저지른 인권 유린을 조사하고 정치적 폭력의 희생자와 주범들의 증언을 채취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범인들의 사면 신청을 심사하였다. 즉 과거 흑인들의 인종 차별 반대 투쟁을 화형, 총살 등의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면 사면하였다. 남은 하나는 희생자들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5년에 발족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이후 2년 동안 31,300명으로부터 피해를 접수함과 동시에 가해자 7,000여 명으로부터도 사면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2만 장이 넘는 서류를

논술고사 (인문계열)

검토하여 사면 신청자 가운데 849명에 대해 사면 조치하고, 3,500여 쪽 분량의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종차별로 분열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개방된 화해’는 일단락되었다.

조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집권당에서조차 사실 왜곡과 ‘마녀사냥’이라 비판하고 또 실제 사실 규명이 곤란한 많은 미결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투 대주교는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어느 누구도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악몽으로 시달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 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발췌, 수정

(라) 사회가 개방화, 다원화, 세계화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 현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구분되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 또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종종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편견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이것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동반할 때 편견이라고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편견은 흔히 특정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결국 차별 현상은 사회구조적·규범적 한계 내에서 형성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행위의 수준으로 발현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도 소수 집단이나 약자 집단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문제는 거대 정치적·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주요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이들을 부당하게 따돌리고,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심리적·폭력적 문제이다. 실상 후자의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 및 인간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측면, 즉 결혼, 데이트, 친구, 동업, 취업, 승진 등에서의 왜곡과 따돌림의 문제로 그만큼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집단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기억과 고정관념에 의해 쉽게 그들을 예단하며 비하시켜 판단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그들이 행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회피나 단절 및 배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억이 집단적 무의식으로 변모된 것이다. 즉, 모방학습, 강화 및 연합과정에 의해 소수 집단에 대해 편향적인 집단적 잠재기억이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 이를 통제하고자 해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편향적 이미지가 잠재적 기억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일례

로 어릴 적의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의 약자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보편주의 및 다양성의 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소수 집단과의 접촉 확대,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의 반복된 노출, 소수 집단의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 평등 지향적 규범 확립 등의 방법들도 편향된 잠재기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발췌, 수정

(마) 2차 대전 당시 최대 규모의 강제노동과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되었던 독일의 ‘부겐발트 수용소’의 시계는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시킨 그 날 그 시각에 멈춰져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수용소는 박물관이 되었고, 시계 조각장, 조각로, 해부탁자 등은 그곳의 전시물이 되었다. 독일인들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복원하여 자국민에게 공개하고 이곳을 견학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곳의 기억은 1945년 4월 11일 오후 3시 15분에 멈춰있는 것이다.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기념탑 앞에 독일의 총리 브란트가 사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후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의 책임이 이전 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국민이 집단 책임에서 면책될 수는 없다(1985년 바이츠체커 대통령)”, “독일인들이 폴란드인들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다(1994년 헤르츠크 대통령)”,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1998년 콜 총리)”, “과거 독일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용서를 빌며 나와 내 세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2002년 라우 대통령)”, “과거 폴란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2004년 슈뢰더 수상)”.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마주한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100명의 젊은이들이 파리에서 베를린, 바르샤바에 이르는 3천km의 역사 바로보기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듬하여 ‘트리템 렐리, 2005’였다. 두 명이 한 대의 자동차를 타고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돌아가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는 여정이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하에서 신음하던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시작해 14일 동안 렐리가 계속되었으며,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유럽인’이라는 공동의 미래를 모색하였다. 이에 참가한 독일 여대생 바바라는 “2차 대전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독일 역사 교육의 또 한 부분이죠.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한 가해국이라는 걸 독일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는 전후 배상과 관련한 독일 재단의 이름이다. 전후 배상과 관련하여 국가 간 법적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은 100억 마르크(약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2차 대전 당시 독일 정부와 기업에 의해 고용된 이들에 대한 배상까지도 책임지고 있다. 최근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들 중 약 60%가 독일을 선택했다.

고등학교 『도덕』 발췌, 수정

논술고사 (인문계열)

■ 문항 2 [30점]

[논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밑줄 친 주장을 반박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100자, 30점)

< 다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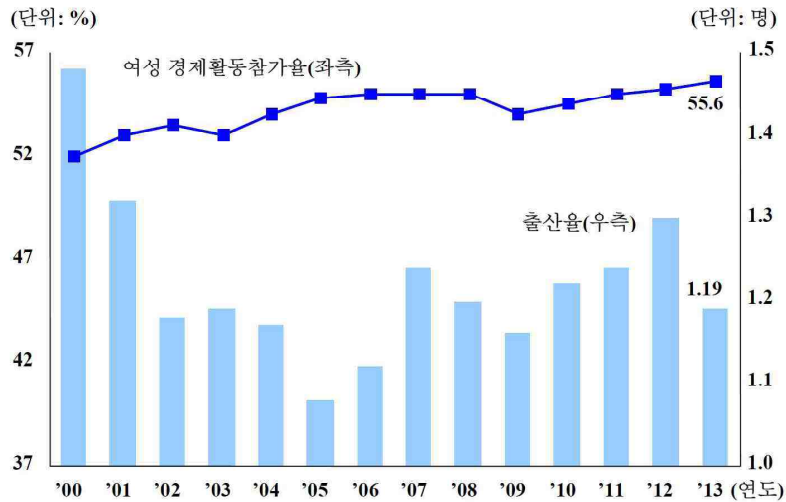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회의 유지와 부양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한다.

* 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

고등학교 『사회·문화』 발췌,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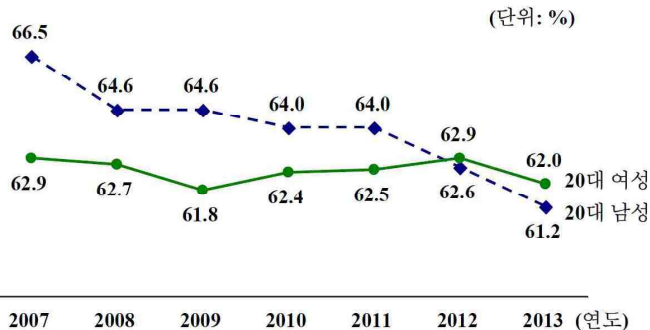
< 자 료 >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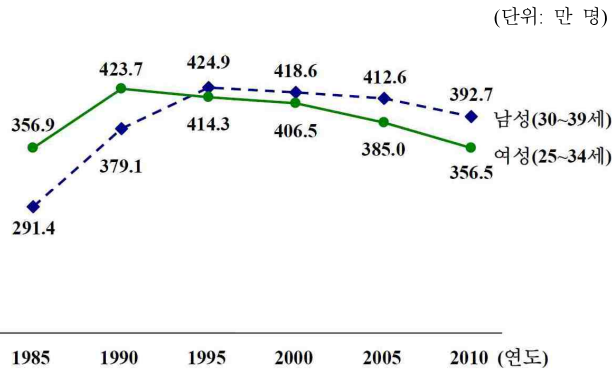
(나) 20대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논술고사 (인문계열)

(다)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라) 연령대별 불임 현황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연령	성별	2008년	2010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20~24세	남성	9	10	11	5.1%
	여성	184	163	135	-7.4%
25~29세	남성	106	122	134	6.0%
	여성	1,691	1,604	1,352	-5.4%
30~34세	남성	518	661	746	9.5%
	여성	3,212	3,638	3,658	3.3%
35~39세	남성	381	564	695	16.2%
	여성	1,272	1,684	1,920	10.8%
40~44세	남성	146	213	266	16.2%
	여성	368	482	549	10.5%
45~49세	남성	46	61	74	12.6%
	여성	87	96	103	4.3%

자료: 『퀵슈머타임즈』

논술고사 (인문계열)

(마) 소득 계층 및 여성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 수

(단위: 명, 25~44세 여성 대상)

소득 계층	2003년			2006년			2009년		
	전체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비취업
저소득층	1.71	1.75	1.69	1.69	1.75	1.65	1.61	1.74	1.55
고소득층	1.86	1.85	1.86	1.82	1.79	1.85	1.75	1.70	1.82

자료: 통계청

(바) 교육비와 출산 의향

(단위: 명, %, 25~39세 여성 대상)

응답자의 교육비 지출 항목	총 응답자 수	현 교육비 수준에서 추가 출산 의향 있음		교육비 부담 감소 시 추가 출산 의향 있음	
보육비	401	99	24.7	178	44.4
유치원비	386	56	14.5	130	33.7
초등학교 교육비	738	62	8.4	191	25.9
중학교 교육비	165	7	4.2	33	20.0
고등학교 교육비	46	3	6.5	11	2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